우암학원 창학 71주년
광주의 명문대학교 광주·전남 취업률 1위!!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光州日報

SINCE 1952

FELICE 승원 팰리체
우수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www.seungwongroup.com 홈페이지 참조]
승원건설그룹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1852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9월 5일 2022년 9월 30일 금요일

민주당·광주시·전남도, 주력산업 추진 힘 모은다

예산정책협의회 국비 확보 논의

광주, 국가 주도 군공항 이전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 등 건의
전남, 국립 의과대 설립
농수협 중앙회 전남 이전 요청

“내 일자리 어디에 있나?” 광주시와 함께 찾는 채용 박람회가 29일 광주 서구 김대중 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렸다. 구직자들이 채용 게시판을 들여다 보며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광주·전남을 찾아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민선 8기 광주·전남지역의 주력산업 추진에 힘을 모은다.

민주당 ‘이재명호’가 출범한 뒤 벌써 두 번째 광주·전남 방문으로, 지난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텃밭’ 민심이 여전히 심상치 않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텃밭 민심 챙기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표는 취임 직후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어 광주·전남 현안사업을 직접 살피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번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광주·전남 발전과 성장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30일 오전 전남도청, 오후 광주시청에서 전남도와 광주시와 각각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박홍근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 양승조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우원식 예결위원장, 박정 예결위 간사,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2일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연 뒤 28일 만에 다시 광주를 찾게 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민선 8기 광주·전남 상생 1호 협력사업인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에서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문영훈 행정부시장,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을 비롯한 실·국장들이 참석하며, 전남도에서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문금주 행정부시장, 박창환 경제부시장 등 실·국장들이 참석한다.

광주시는 이번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가주도 군공항 이전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 유치 지원 ▲광주 미래자동차 국가산단 조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국비지원 확대 등의 5건의 주요 현안 사업을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는 또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연계 역사문화관광벨트 사업, 제3순환 고속도로망 도로 개설, 헬스케어 빅데이터플랫폼 기반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사업 등 20건의 국비 지원사업도 건의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20개의 주요 국비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요청과 9개의 정책 현안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정책 현안으로는 ▲국립 의과대 전남 설립 ▲농·수협 중앙회 등 공공기관 전남 이전 ▲전라선 고속철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풍력발전 인허가 통합기구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쌀 수급 및 쌀값 안정대책 건의 등이 협의회 안건에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비 확보를 위해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하는 사업으로는 관광 중심지 도약을 위한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 선도사업(154억원)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사업 등으로 올해 결과 발표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곧바로 예산에 반영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국립 난대수목원(6억원) ▲광주의 연구개발 특구와 연계해 바이오·의료산업 클러스터 기반 구축을 위한 국립심뇌혈관 연구소 설립(231억원) 등이다.

아울러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컴플렉스 조성(5억원) 사업의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우주항공 분야 개발 사업과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 확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 예산정책협의회가 끝난 뒤에는 당 지도부들이 신안 지도읍 태양광발전소 등을 찾아 민생 현장 활동도 할 예정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요양병원·시설 대면접촉 면회 다음달 재개할 듯

요양병원·시설 대면접촉 면회가 다음 달 초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을 논의하면서 요양병원·시설 등의 접촉 면회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대본에서 접촉 면회 허용이 결정되면 다음 달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9일 밝혔다.

현재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은 비접촉 면회만 가능하다. 코로나19 여름 재유행이 확산하면서 지난 7월 25일부터 접촉 면회가 다시 금지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재유행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방역 완화 기대가 높아졌고, 특히 감염취약시설 집단감염 사례가 감소하면서 요양병원 등 접촉 면회 요구가 커졌다. 요양병원 대면 면회 허용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부에 제시한 요구 사항이기도 하다. /연합뉴스

교육장관 이주호 지명

경사노위 위원장엔 김문수

이명박(MB) 정부의 교육정책을 주도했던 이주호(61·사진)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마지막 퍼즐’로 꼽혔던 교육장관 자리는 박순애 전 장관 사퇴 이후로 50여일째 공석이었다. 약 10년만에 교육수장에 복귀한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노동개혁 논의를 주도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발탁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이같은 인선을 단행했다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학자 출신인 이 교수는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 교육과학문화수석,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을 거쳐 2010~2013년 장관을 지냈다. 자율형사립고, 마이스터고 신설 등 교육정책을 주도한 바 있다.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대학원 교수로 재직해왔다. 지난 지방선거 때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으나 완주하지 않았다.

17대 국회(2004~2008)에서 당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효천역~도라산 ‘통일열차’ 인기 ▶7면
광주일보 제9기 13차 독자위원회의 ▶14면
북스 - 내추럴 와인 : 취향의 발견 ▶15면

10월 3일 개천절 신문 쉽니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